

○齒協 諸般 懸案課題 真摯하게 協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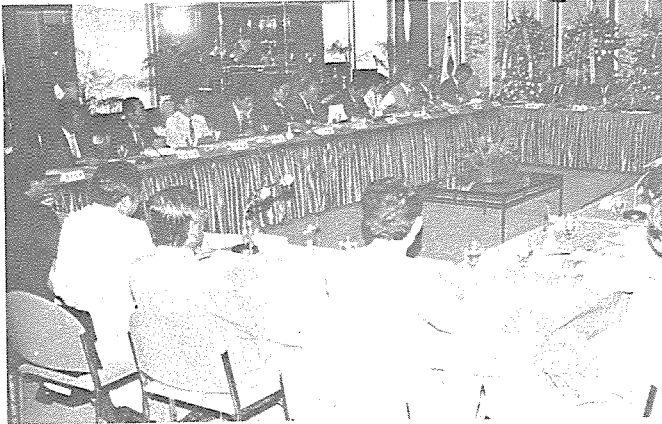
○補綴 医療保險 適用問題 重点討議

齒協은 지난 27일 釜山하이아트호텔 회의실에서 會長團, 議長團, 監事團 및 任員 그리고 各 市道支部長, 亞太組織 委員長이 參席한 가운데 齒協 全般에 걸친 懸案問題를 長 長 5時間에 걸쳐 協議했다. 이날 李鍾守 齒協會長의 다음 과같은 會務 全般에 對한 報告에 이어 補綴 醫保 適用問題 등은 重點 討議했다.

▲의료보험 치과상근심사위원=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근심사위원이 7명에서 10명으로 증가, 조만간 관계당국의 임용기대 ▲보건소의 보철진료문제=당초 보사부에서 계획했으나 협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중지하기로 약속받은 상태 ▲보철 보험 적용=내년 도시영세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 시기에 맞추어 실행할 것으로 추측. 이에 대항할 근거자료 마련키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상대 ▲구강보건 담당부서 부활=치과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 현재 관계당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진전중 ▲치정회=현재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金東順)가 구성중임. 금년중 창립될 전망 ▲女衛會문제=일부 여자치과의사 들의 亞太회의 불참선언사건, 심히 유감. 이 사태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음예정. ▲亞太조직위원회=현재 丁東均위원장을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

●보철물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문제에 관하여
○보철 의보실시문제는 상당기간이 지난후 치협과 상의한 후 실시하겠다는 보사부 입장인데 벌써부터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유보하든지 철회하기 바란다.

▲보사부 고시 88-14호로 보철이 의보非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사부에서 전액 본인부담 보험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치협에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도 노동조합과 같은 압력단체의 활동으로 보철보험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보사부에서 치과보철은 상당한 기일동안 협의하여 실시하겠다고는 했으나 요즘 압력단체의 추세로 봐서는 언제 실시될지 모르는 일이다. 예로 지난 25일 공청회가 있었는데 출연한 위원들을 보면 의료계뿐 아니라 압력단체도 많이 포함됐다. 이제는 보사부



자체로만 이끌어갈수만은 없는 단계이다. 5백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농민회등이 통합주의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렇듯 압력단체에서 보사부에 계속 압력을 가하면 언제 실시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준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 미리 자료를 제시하여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자치과의사회 아·태회의 불참문제
○亞·太회의를 목전에 두고 여자치과의사회가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치협은 대책은 무엇인가. 치협에서 양보할 의사는 없는가. 집행부는 아량을 가지고 여치회를 설득 타협하기 바라며 여치회는 대를 위해 小를 버리는 입장에 설수는 없는가.

▲협회 내에는 여치회같은 임의단체가 많은데 협회가 정한 결정에 불복하여 반목할수는 없다고 본다. 치협회원은 개인 자격으로 가입된 것이다. 고로 협회에서는 모든 치과의사를 개별회원으로 대하고 있다.

아·태조직의 규정 제5조④항에 의거,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문제는 중재성격이 아니다. 이문제를 일으킨 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마무리시키기 바란다. 당사자가 사과와 후회의 뜻을 보이면 제고하겠다.

“다릅니다”

東明 Gold Casting Alloy · 東明 Amalgam Alloy · 東明 Porcelain Alloy

東 明 合 金

275-4414, 1243 · 277-2875

서울시 중구 수표동 27-1 (세한B/D 708호)